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901호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면 2길 6번지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음 1월 8일)

제 14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지에 군산도 거론

도-도내 정치권 “새만금 지장”

한-중 경협단지 조성 악영향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적합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지에 군산이 거론되자 전북도와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김춘진·최규성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도당위원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는 절차상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새만금사업 등에 막대한 경제적 차질이 예상돼 지역발전엔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지금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근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뤄진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는 과정에 있는 시점”이라며 “사드의 군산 배치 논의는 수조원이 투자된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서의 중요성과 도민들의 실감감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사

국방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합의하기로 발표하고, 후보지 중 한곳으로 군산지역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12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와 최규성·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도당위원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드 배치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도민들의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정부에 군산·새만금지역은 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국방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인 종발 모드(TM) 레이더로, 적 탄도미사일의 강하 각도를 고려해 지표면과의 각도를 높게 한다. 적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한 조기경보용(FBM) 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를 길게 하고자 낮은 각도로 운용된다.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문제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위협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주민들의 인체 피해와 차량과 선박,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우려된다.

이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커다란 악재로 떠오른다.

더불어 동서·남북 2축도로와 공항 및 항만, 농생명용지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의 차질이 예상된다. 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를 비롯한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정치권도 두 팔을 걷을 태세다.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재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국제

관계의 악화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한창 탄력을 받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신항만 한·중경협단지 조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에게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훼손,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산을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도 군산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드 군산배치 전면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2016년 무주군 체육협의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6년 2월 18일(목)부터 2월 19일(금)까지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전주매일신문
-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 개막식 일시·장소: 18일(목), 무주덕유산리조트 지하 2층 대연회장
- ▲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 접수기간: 2016년 2월 17일까지
- ▲ 참가접수: 이메일(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 홈페이지(www.jjmaeil.com)
-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문제인 “개성공단 기업 정부에 뒤통수 맞았”

더불어민주당 문제인 전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관한 책임을 국세사회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서 안된다.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구제역 발생 한달만에 종식

전북도가 구제역에 대한 성공적인 초동방역으로 발생 한달여만에 ‘구제역 조기종식’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도는 구제역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들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에서는 지난 달 11일 김제 읍

지와 같은 달 13일 고창 무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다. 이에 따라 도는 살처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21일이 경과한 후 임상·환경검사를 통해 구제역 음성을 확인하고 김제 읍에서의 이동제한을 지난 4일 해제했으며 고창 농가에 대해서도 매뉴얼 상의 시일이

축산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지난 뒤 임상·환경검사 음성을 확인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현재 도는 최초 40개소로 운영되던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4개소 해제해 3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항체가 저조한 83호의 농가에 대해 올바른 백신 접종을 지도했다. 앞으로 도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항체형성을 확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준치(SP항체 형성을 비육돈 30%, 모돈 60%)에 못 미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해 농장 책임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엄격한 세척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과 재입식가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순창이 참 좋다

눈내리는 겨울
순창의 겨울은 아름답습니다.

